

“네가 필요해”에 마음 돌린 김광현 “실망시키지 않겠다”



3년 만에 KBO리그로 돌아온 김광현(34·SSG 랜더스)이 “말보다 성적으로 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광현은 9일 구단을 통해 SSG 유니폼을 입은 소감에 대해 “좋다. 고향팀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친숙한데, 랜더스 유니폼은 처음이라

빅리그 생활 마치고 3년 만에 KBO리그 복귀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 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그가 떠난 2년간 구단이 임시 결번으로 지정해줬던 '29번'을 다시 달게 된 김광현은 “이렇게 다시 팬들 앞에서 29번을 달 수 있는 날이 돌아와 새로운 기분”이라며 “예전을 생각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배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SSG는 전날(8일) 김광현과 4년 총액 151억원(연봉 131억원, 옵션 20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3년 만의 국내 무대 복귀다.

2007년 프로 데뷔 때부터 2019년까지 SK 와이번스(현 SSG)에서 뛰었던 김광현은 2019시즌을 마치고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2시즌 동안 활약했다.

2021시즌이 끝난 뒤에는 메이저리그에서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었다. 빅리그 잔류의지가 컸지만 메이저리그 직장폐쇄(락아웃)가 길어지면서 SSG와 손을 잡게 됐다.

김광현은 “한국에 온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구단과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꿈을 위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접기가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런 그의 마음을 SSG가 돌려세웠다. 김광현은 “구단주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장님, 단장님, 감독님 모두 여러 차례 전화도 주시고 자주 소통하면서 다시 팀으로 복귀하게 됐다. 감독님을 비롯해 모든 프런트분들께서 진정성있게 말씀하시는 목표는 한 가지였다. 그 진정성 있는 한 가지를

이루는데 다시 한번 힘을 보태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광현이 빅리그에 남은 뜻을 접고 SSG로 향하게 된 결정적 한 마디는 “우승을 하려면 내가 필요하다”였다. 김광현은 “진정성이 느껴졌다. 나 또한 새로운 팀 'SSG 랜더스'가 우승하는 모습을 그려봤는데, 감동적이었다. 그 청사진이 내 마음을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겨우내 김광현을 향한 동료들의 구애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빅리그 생활을 마감하고 지난해 SSG 유니폼을 입은 추신수, 오랜시간 함께했던 최정도 김광현에 ‘복귀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김광현은 “사실 ‘한뼉박’처럼 들었다. 형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나를 꼬셨다”며 농담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인데,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쉬워하시는 팬분들도 계시지만 김광현이라는 선수가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운드에서, 야구장에서 그리고 야구장 밖에서도 팬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에서 얻어온 경험은 아깝없이 나눌 생각이다.

“말보다 좋은 성적으로 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김광현은 “선배님들께는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후배들에게는 짧다면 짧은 2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배웠던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잔소리는 줄이

고 포인트만 콕콕 찍어서 가르쳐줄 수 있는 ‘꼭 집게 강사’ 같은 선배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메이저리그에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었지만 생각 자체가 많이 다르다. 20대 초중반의 선수들도 ‘어떻게 하면 야구 인기가 많아질까’를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팬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한국과 다르다. 프런트를 포함해 선수들도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팬 서비스에 있어서 한국 프로야구가 더 발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겨우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지 못한 김광현은 다치지 않고 한 시즌을 온전히 치러내는 부분에 신경을 쓸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우승’에 대한 욕심은 감추지 않았다.

김광현은 “각정되는 부분은 15년 동안 야구를 해오면서 처음으로 스프링캠프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와 선수단, 프런트, 팬 여러분들 목표는 단 한가지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선수들과 자주 이야기하고 코칭스태프와 상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광현은 “팬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김광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야구장에도 오지 못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야구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나와 선수들 모두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을 팬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

푸이그·양현종에 김광현까지, KBO리그에 봄바람 분다

1년 앞선 추신수까지 스타들 맞대결 큰 화제 예상

개막이 한 달여 남은 프로야구가 풍성한 야깃거리를 예고하고 있다. 벌써부터 기대만 발이다.

SSG는 8일 김광현과 4년 총액 151억원(연봉 131억원·옵션 20억원)에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에이스’ 복귀 소식에 KBO리그도 들쭉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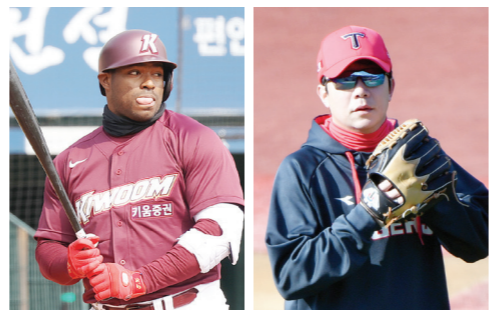
김광현은 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에이스로 활약해왔다. 2007년 프로 데뷔 후 통산 298경

기에 등판해 136승77패2홀드 평균자책점 3.27의 성적을 냈다.

2019시즌을 마친 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계약,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김광현은 3년 만에 국내리그 복귀를 택했다.

빅리그 경험까지 쌓고 돌아온 에이스를 향한 관심은 이전보다 더 컸다.

김광현에 앞서 KBO리그 복귀를 택한 스타는 또 있다. 2021시즌 미국 도전에 나섰던 양



현종(KIA 타이거즈)도 지난해 말 친정팀 KIA로 돌아왔다.

김광현과 함께 리그에서 손꼽히는 좌완 양현종은 KBO리그 현역 투수 중 가장 많은 승리(147승)를 따냈다. 양현종의 승리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

두 선수보다 1년 앞선 지난해에는 추신수(SSG)가 유종의 미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KBO리그 데뷔 시즌 최고령 20-20 클럽 가입으로 ‘역시 메이저리거’라는 찬사를 받은 추신수는 올해 김광현과 함께 SSG 대권 도전에 힘을 보탠다.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LA 다저스 시절 동료로 스타성을 보유한 타자 야시엘 푸이그(키움 히어로즈)도 빼놓을 수 없는 화제의 인물이다.

김광현과 양현종이 푸이그와 맞대결을 펼치는 장면은 큰 화제를 모을 수 있다. 양현종이 타석에선 추신수를 상대하는 모습도 팬들의 흥미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다.

벌써 세 시즌째 정상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코로나19가 관건이지만, 팬들의 구미를 당길 요소들은 예년에 비해 한층 더 풍부해졌다.

현장의 기대도 크다. 흥행기 키움 감독은 “추신수, 양현종, 김광현, 푸이그뿐 아니라 기존 선수들이 활기찬 플레이로 팬들께 어필하면 야구 흥행에 크게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야구 인기에 선수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면 분명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뉴스



전남체육회는 나주 금성고 사이클팀 김정민·윤영우·신동일·유시안·나현광·이민우·박상진이 강진에서 열린 제69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전남체육회 제공)

나주 금성고 사이클팀 전국대회 단체전 종합우승

제69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금메달

나주 금성고 사이클팀이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서 단체전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체육회는 나주 금성고 사이클팀 김정민·윤영우·신동일·유시안·나현광·이민우·박상진이 강진에서 열린 제69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김정민은 개인도로, 개인도로2, 크리테리움에서 각각 5위(3시간5분10초), 2위(1시간58분29초), 5위(28분22초)를 차지해 개인종합 2위

를 차지해 단체전 1위에 기여했다.

또 금성고 사이클팀은 개인도로단체 1구간, 개인도로 단체 2구간, 크리테리움 단체 등 3구간 단체전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하며 단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신동일은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했다.

박현상 지도자는 “사이클 명문 금성고의 이름을 전국에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추후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FIFA, 우크라이나 월드컵 예선전 6월 연기

러시아와 맞붙을 예정이었던 폴란드는 부진승 처리

국제축구연맹(FIFA)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 연기 결정을 내렸다.

FIFA는 9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로 예정됐던 우크라이나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지역 예선 플레이오프 일정을 6월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우크라이나는 오는 25일 스코틀랜드와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같은 조에 들어가

있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오스트리아의 축구협회와 상의 끝에 우크라이나와 스코틀랜드의 맞대결 일정을 6월 중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FIFA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4개국 축구협회와 협의한 후 연대의 정신으로 만장일치로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웨일스와 오스트리아의 맞대결은 그대로 오는 2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까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구태여 일정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기

대문이다.

이와 함께 FIFA는 폴란드의 부진승을 확정했다. 폴란드는 오는 25일 러시아와 플레이오프 4강전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지만 FIFA와 UEFA가 러시아의 퇴출을 선언했기 때문에 폴란드와 러시아의 경기 자체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오는 30일 스웨덴과 체코의 승자와 본선 티켓을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됐다.

다만 러시아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FIFA와 UEFA의 결정에 대해 제소한 상황여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CAS가 러시아의 제소를 받아들여 FIFA와 UEFA의 결정이 취소된다면 혼란이 예상된다.

뉴스

양희영, ‘약속의 땅’ 태국서 우승 도전

LPGA 투어 통산 4승 중 혼다 타이랜드에서만 3승 수확

양희영(33)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타이랜드(총상금 160만 달러)에서만 통산 4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양희영은 오는 10일 태국 춘부리의 시암 컨트리클럽 파타야 올드 코스(파72)에서 열리는 혼다 LPGA 타이랜드에 출전한다. 대회는 68명이 출전해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된다. 4라운드까지 컷 탈락 없이 경쟁한다.

한국 선수는 총 8명이 출전한다. 양희영과 함께 김아림(27), 김효주(27), 유소연(32), 이정

은5(34), 이정은6(26), 전인지(28), 최운정(32)이 우승에 도전한다.

양희영은 LPGA 투어에서 4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혼다 LPGA 타이랜드에서만 세 차례(2015, 2017, 2019년) 우승하면서 유독 이 대회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양희영은 2019년 2월 우승 이후 약 3년 1개월 동안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우승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공동 3위에 머물렀다.



양희영은 지난주 HSBC 여자 월드 챔피언십에서 올해 처음 톱10에 진입하며 예열을 마쳤다.

다랜딩 챔피언 주타누간(태국)과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한 재미교포 대니얼 강,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리오나 매카이어(아일랜드)도 우승을 노린다.